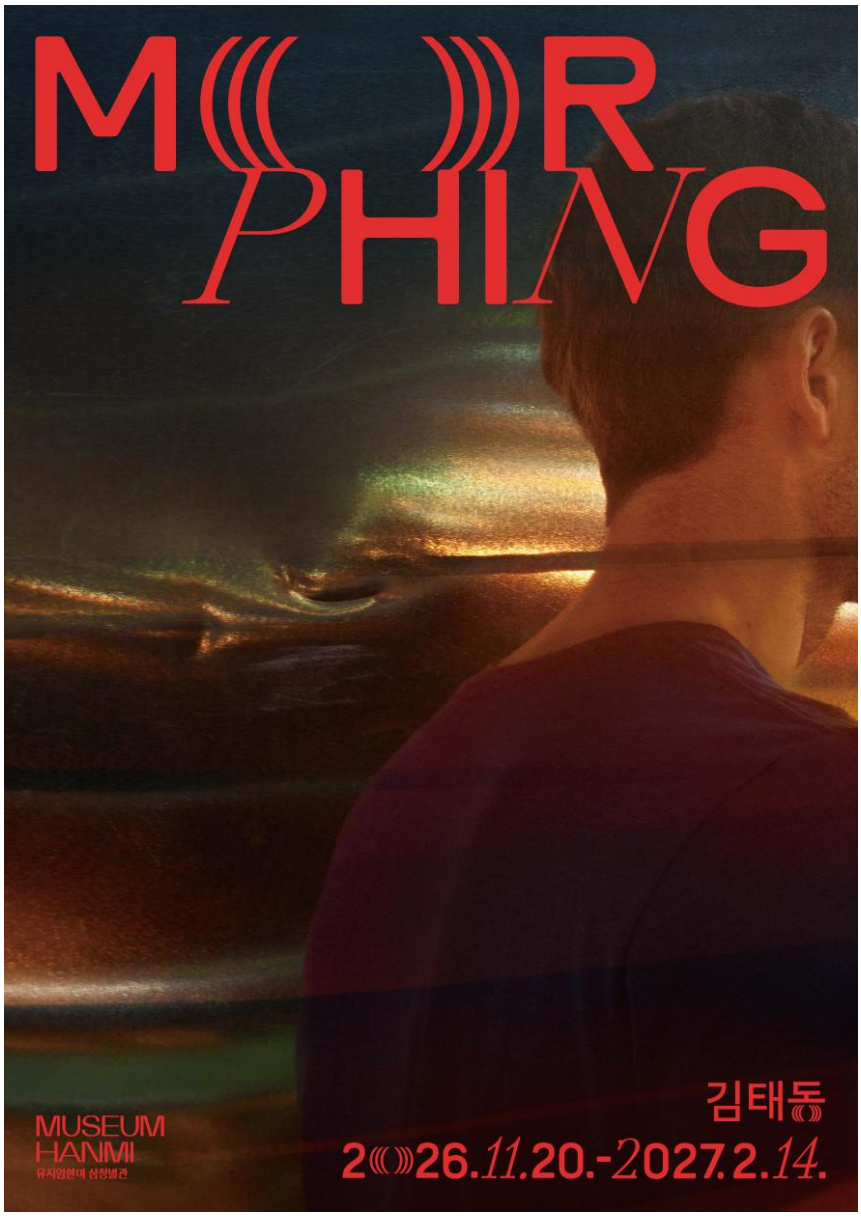
[보도자료]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기획전

김태동 개인전《Morphing》

2026. 11. 20. (금) ~ 2027.02. 14. (일)



- 뮤지엄한미, 김태동의 신작을 선보이는 개인전《Morphing》개최
- '도시멍'에 잠긴 낮의 얼굴들, 밤의 도시와 겹쳐지다

MUSEUM
HANMI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전 시 소 개

■ 뮤지엄한미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 삼청별관에서 김태동 개인전 《Morphing》을 개최한다. 김태동은 그간 도시의 인물과 장소에 담긴 시간과 기억을 사진으로 탐구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물의 측면 초상과 밤의 도시 풍경을 결합한 신작 〈Morphing〉을 선보인다.

■ 작업은 전망대에서 도시를 바라보며 이른바 '도시멍'에 잠긴 인물들의 측면 초상을 촬영하는 데서 시작된다. 작가는 이들의 모습을 아크릴, 알루미늄, 메쉬 등 옥외광고물에 쓰이는 재료에 출력하고, 이를 밤의 도시로 옮겨 다시 촬영한다. 재료의 반사와 투과로 초상 이미지에 도시의 빛과 풍경이 겹쳐지고, 인물의 시선과 표정은 사진 안과 밖의 주변 공간과 어우러져 무언가를 기다리거나 어떤 사건을 마주한 듯한 장면을 이룬다.

■ 작업 제목 '모핑(Morphing)'은 변형(metamorphosis)에서 유래한 단어로, 영화나 그래픽,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서서히 변화하는 기법을 가리키는 용어에서 착안했다. 이는 낮에 촬영한 인물 이미지가 밤의 도시 풍경과 빛에 어우러지며 새로운 장면으로 변모하는 작업의 시각적 여정을 함축하는 핵심어다. 밤의 도시를 수놓은 빛의 향연 속에서 마치 마술처럼 펼쳐지는 이미지의 변환은 사실 작가의 지난한 물리적 수고를 거쳐 완성된다. 낮에 촬영한 인물 이미지를 다양한 소재의 평면에 인쇄한 뒤, 장변이 1m 안팎이고 무게는 8-10kg 내외인 아크릴판과 철판, 알루미늄판을 들고 밤의 도시 곳곳을 누비며 원본 이미지와 정확히 호응하는 빛과 주변 환경, 촬영 각도와 시점을 찾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까다롭고 고된 작업이다. 이미지의 자연스러운 변환을 구현하기 위해 작가는 수많은 장소를 탐색하고, 미세한 조건의 차이를 조정하며,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감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무관했던 인물과 장소는 하나의 개연성 있는 장면으로 결합한다. 작가는 이러한 만남에서 생겨나는 밤의 도시 속 새로운 이야기와 연극성에 주목한다.

■ 이러한 시도는 작가가 새벽 운전 중 마주한 옥외광고에서 비롯됐다. 휘어지고 찢긴 광고판 속 모델의 모습은 밤의 빛과 반사로 더욱 왜곡되어, 본래의 역할과 관계없는 상황에 놓인 인물처럼 보였다. 작가는 자신의 사진 속 인물이 어둠이 내리고 밤의 빛이 도시를 수놓는 시간, 낯선 공간에 놓인다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갖게 될지 궁금해졌고, 인물 이미지를 밤의 도시로 옮겨 다시 촬영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 밤의 도시는 이러한 장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인공조명은 이미지의 형태와 색을 바꾸고, 인물의 표정과 시선에 극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작가는 인물 이미지가 놓일 장소와 빛, 주변 풍경의 관계를 조율해 장면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그 결과 서로 다른 곳에서 촬영된 인물과 풍경은 마치 그곳에서 함께 포착된 듯 보이며, 낯설면서도 실제로 일어날 법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현실의 인물과 장소를 재구성한 사진 속에서 실재와 허구가 교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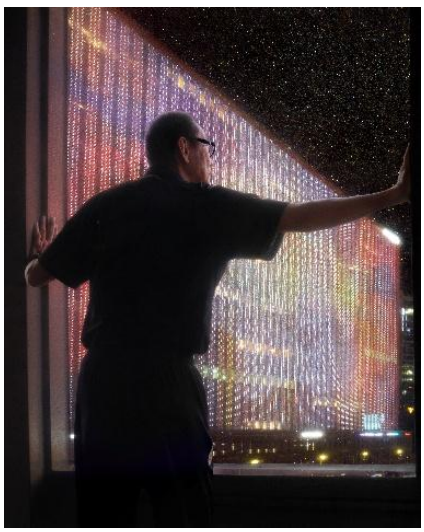
■ 이렇게 완성된 사진들은 각각 독립적인 장면이면서, 함께 바라보면 밤의 도시에서 벌어진 일들을 담은 하나의 이야기로도 읽힌다. 다만 인물이 누구인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 관람객은 인물의 시선과 표정, 주변 풍경을 단서로 각 장면의 상황과 사진 사이의 관계를 상상할 수 있다. 작가는 관람객이 이번 전시에서 짧은 이야기나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경험을 하고, 장면이 만들어진 방식을 발견하며 각자의 해석을 서로 나누기를 기대한다.

■ 전시 기간 중에는 아티스트 토크, 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12월 5일(토)에는 작가에게 직접 작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가 열린다. 1월에는 신작 제작 과정과 작업 방법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워크숍과 창작 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상상력과 시각적 표현을 경험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전시 관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자세한 정보는 미술관 홈페이지(https://museumhanm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작가 소개

김태동(1978–)은 도시를 탐험하며 이미지를 수집하고, 사진을 통해 재현되는 새로운 시간성에 주목한다. 인물과 장소를 특정한 시간적 맥락 안에 배치하거나, 한 장소에 축적된 역사적 사건과 기억을 현재의 풍경에 중첩시키는 방식으로 작업해왔다. 도시 주변부를 관찰한 초기의 다큐멘터리 작업부터 전쟁의 시간이 남아 있는 장소를 장노출 촬영으로 기록한 최근 작업까지,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진 실험을 이어오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인천아트플랫폼, 뮤지엄한미를 비롯해 하라미술관(도쿄), 포토페스트(휴스턴), 휴스턴미술관(MFAH) 등 국내외 미술관과 기관에서 전시와 협업을 진행했다. 일우사진상, KT&G SKOPF, 아마도사진상 등을 수상했으며, 작품집으로 『김태동』, 『Day Break/Break Days』, 『PLANETES』 등을 출간했다.

홍보용 이미지 목록

No.	작품 이미지	캡션 및 상세정보
1		〈Morphing-001〉, 2017, 2026, Archival pigment print, ⓒ김태동
2		〈Morphing-003〉, 2017, 2026, Archival pigment print, ⓒ김태동
3		〈Morphing-021〉, 2026, Archival pigment print, ⓒ김태동
4		〈Morphing-025〉, 2026, Archival pigment print, ⓒ김태동

5		〈Morphing-028〉, 2026, Archival pigment print, ⓒ김태동
이미지 요청 및 문의 김소정 02-733-1315 press@museumhanmi.or.kr		보도자료 및 홍보용 이미지 다운로드 www.webhard.co.kr ID: hanmimuseum / PW: 1315 게스트 폴더 > '내리기 전용' > 김태동 개인전《Morphing》

전 시 개 요

전시제목 : 김태동 개인전《Morphing》

전시기간 : 2026년 11월 20일 (금) ~ 2027년 2월 14일 (일)

전시장소 :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11길 11)

전시작품 : 사진 22점 내외

주　　관 : 뮤지엄한미

기　　획 : 뮤지엄한미

후　　원 : (재)가현문화재단,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관람시간 : 화-일 10:00 ~18:00(매주 월요일 휴관)

문　　의 :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대표전화 02-722-1315, museum@museumhanmi.or.kr

※ **이 전시는 별도의 기자간담회 없이 진행합니다.**

※ **보도자료 및 홍보용 이미지는 뮤지엄한미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접속

ID: hanmimuseum / PW:1315 로그인

게스트 폴더 > 내리기 전용 > 김태동 개인전《Morphing》